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9권 제5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23.19.05.081 2023, Vol. 19, No. 5, pp. 81-106

협력 활동을 활용한 4, 5세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 「버디톡」의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and Effects of 'Buddy TOC': A Sociability Program for 4- and 5-Year-Old Children through Cooperative Activities

김보들맘[1] 권연희[2] 박진재[3] 윤상인[4] 임수경[5]

Bodlemam Kim[1] Yeonhee Kwon[2] Jinjae Park[3] Sangin Yoon[4] Sukyung Lim[5]

[1] 제1저자
한길교육연구소 소장

[2]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yeonheekwon@pknu.ac.kr)

[3] 공동저자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대표

[4] 공동저자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객원연구원

[5] 공동저자
한길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ociability program for young children (Buddy TOC), consisting of cooperative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its effects on children's sociability, such as empathy, self-regul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Method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extra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The goodness-of-fit of the drafted program was verified by specialis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rough a preliminary study. The effects of 'Buddy TOC' were tested based on the selected 5 sessions with regard to children's empathy, self-regul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Overall, 70 participants (35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5 in the comparison group) were 4-year-olds, and 67 participants (3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4 in the comparison group) were 5-year-olds. The data were analyzed by conducting ANCOVA based on age.

Results: Empathy, self-regul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of the 4- and 5-year-old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mparison group, and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ubareas.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eld applicability and importance of 'Buddy TOC' as a sociability program, utilizing cooperative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young children's social skills, were discussed.

key words cooperative activity, empathy,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skill, young children

I. 서 론

오늘날은 모든 사람과 사물 등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빠른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문제해결 역량과 함께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는 관계 역량이 필요하다. 유아는 사회적 존재이나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소통과 협력의 관계 역량을 포함하는 사회성 발달은 늘 강조되어왔다. 유아의 사회성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유아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미래 사회에 적응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에 초연결의 시대에 유능하게 행동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아기 사회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성은 포괄적이며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유아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능력(조재현, 김영희, 2017; Shaffer, 2008),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과 기술(Kostelnik et al., 2017) 등으로 정의된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타인의 반응 및 감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놀이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Katz & McClellan,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성을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 인지, 행동을 경험하고 조절하여 표현하며, 사회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증진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공감은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이며, 유아기는 공감능력을 기르기에 최적의 시기이다(최혜진, 김선영, 2015; Howe, 2013). 공감능력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 상호작용 시 상대방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조망하여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상호소통한다(Gordon, 2010; Howe, 2013). 즉, 공감능력의 증진은 유아가 타인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갖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친사회적 표현을 통한 소통과 존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공감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공감능력 이외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자기조절력을 들 수 있는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조절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돕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거부될 수 있는 행동을 조정한다(Leary & Guadagno, 2011). 행동이나 정서, 동기, 주의 등을 통제하는 자기조절력이 높아지면 유아는 목표 지향적이며, 여러 맥락에서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사회에서 기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므로(이슬아, 권석만, 2017; 지성애, 2017; Carver & Scheier, 2016), 자기조절력은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협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질문과 대답 등을 하는 언어적 소통 기술이나 함께 하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적인 행동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인간 기술에 대해 Gresham과 Elliott(1987)는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Katz와 McClellan(2001)은

언어적 의사소통, 부드러운 주장과 거절할 수 있는 기술, 차례 바꾸기 등을, 김우영과 김영옥(2014)은 대화하고 협의하는 기술, 순서를 지키거나 기다릴 줄 알기 등을 강조하였다. 유아의 대인간 기술은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기에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대인간 기술 교육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및 대인간 기술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중 유아가 또래와 함께 협력하는 놀이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증진될 수 있다. 즉,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배움의 맥락으로, 유아는 또래와 협력하는 놀이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며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래에 대한 공감, 자기조절력 및 대인간 기술을 연마하는 등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교수학습으로서 협력 활동은 유아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활동으로 공동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유아가 소집단 및 대집단으로 함께 하는 활동이다(안정은 등, 2019: Johnson & Johnson, 2013).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유아-유아 간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또래를 도와주거나 소통하여 지원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즉, 협력 활동은 또래학습에 의한 활동을 자극하는 교수전략이 되며, 교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주도를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하여 유아 중심의 보육 활동을 촉진한다(신은수, 1993). 연구자들은 협력 활동의 구성요소로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적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집단과정을 제시하는데(안정은 등, 2019; Johnson & Johnson, 2013),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성취를 위해 또래와 서로 도움을 주는 행동, ‘개별적 책무성’은 과제수행의 책임을 각 구성이 가지는 것, ‘대면적 상호작용’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촉진시키는 것, ‘사회적 기술’은 집단 내에서의 갈등관리, 의사결정, 효과적 리더십, 능동적 청취 등의 행동, ‘집단과정’은 유아가 목표를 잘 성취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함께 노력하고 협력했는지에 대한 토론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협력 활동을 경험하면서 놀이맥락 내 또래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신과 또래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또래 간 상호작용에 적용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소통하여, 자신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과 같은 사회성을 증진하여 관계에서 유능해진다(김유경, 손원경, 2006; 손복영, 2017; 안정은 등, 2019; Johnson & Johnson,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아의 사회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학습으로서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괄하기보다 미술(양새롬 등, 2013; 이수기, 2005), 신체(이수진, 2012), 게임(신슬아, 2018)과 같이 한가지 활동 유형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거나 그림책(안정은 등, 2019; 염연정, 2009)과 같이 매체 특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다양하며 유아는 스스로 주도하는 통합적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소재와 매체를 활용

하여 다양한 유형의 협력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는 누적 및 지연효과가 있다는 특징(Kostelnik et al., 2017)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보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고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연간 보육계획 시 고려되는 계절, 기관 행사, 유아의 관심과 흥미, 일상적인 경험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협력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학급에서 보육과정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통합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및 유형의 놀이로 구성되었다. 진행하는 놀이 주제를 고려하여 개발된 회기 활동의 진행 순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사가 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한 수업 또는 교사 주도의 집단 활동이 아니라 유아의 흥미와 경험에 기초한 놀이에 기반하므로 어린이집 일과 중 자유놀이시간에 쉽게, 연중 지속하여 실시할 수 있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래 간 협력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놀이맥락에서 자발적인 또래 간 협력을 통해 사회성 증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성 증진의 교육적 의도를 가진 협력 활동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획일적 운영보다는 유아들의 흥미를 토대로 활동이 제공되고 학급의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주도하에 반복 또는 지속되어 진행됨으로써, 실행의 지속성과 편의성, 효과성을 지닌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은 또래 집단을 구성하고 협력이 가능한 4세 이후 유아(신유림 등, 2019; 정현정, 2014)로 하였으며, 4, 5세 유아가 놀이에서 보이는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구체적 활동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신유림 등(2019)에 따르면 4세 유아는 집단을 구성하고 놀이하면서 언어로 자기주장을 말하고 규칙을 이해할 수 있으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며, 5세 유아는 집단의 형태로 진행되는 놀이에서 동일한 목표를 정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며 집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이에 4, 5세 연령별로 연간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용이한 협력 활동으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명은 유아들이 부르기 쉬우면서 동시에 용어가 프로그램의 특성을 함의할 수 있도록 영문 'Buddy Team Of Cooperation'에서 추출한 조성어인 「버디톡(Buddy TOC)」으로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의 적용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 문제 2.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효과는 어떠한가?
2-1.「버디톡」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2.「버디톡」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3.「버디톡」이 유아의 대인간 기술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진행 절차

유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개발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과 같은 사회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였다. 공감능력(정하나, 2015; Davis, 1994; Howe, 2013), 자기조절력(이슬아, 권석만, 2017; 지성애, 2017; Carver & Scheier, 2016), 대인간 기술(김우영, 김영옥, 2014; Katz & McClellan, 2001)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각 변인의 개념 및 하위요인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성의 하위요소인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어린이집에서의 계절, 기관 행사 등과 연계하여 또래와의 협력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의 내용 및 교수학습을 기초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참조하고 연령별 푸르니 보육프로그램(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16; 2019)의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김영옥, 오숙현, 2001; 김유경, 손원경, 2006; 이인원, 최기영, 2006; 이화원, 손은령, 2019; Johnson & Johnson, 2013)를 바탕으로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4세와 5세 연령별 협력 활동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버디톡」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령별로 각각 연간 10회기 활동을 학기 초 적응 기간 및 학기말 마무리 기간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1회기를 기준으로 학급의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각 회기당 활동은 3~4주간 단계별로 실시되는 프로젝트 활동, 1~2주간 반복하여 실시하는 소집단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각 활동의 활동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1회기당 1개 또는 2개의 활동이 선정되었다. 각 회기의 진행 기간과 순서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유아의 특성, 흥미, 학급의 놀이 주제 등을 고려하여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세는 또래와 함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알고 공동의 목표 또는 과제수행을 위해 서로 돕고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둔 미술·조형, 신체게임 등의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5세는 문제해결을 위해 또래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과제수행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나누기 및 토론, 협력게임, 미술·구성, 공연·전시 등의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넷째, 연령별 10회기 협력 활동의 적절성을 검토받기 위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현장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유아교육 전문가는 4년제 유아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1인, 현장 전문가는 현장 경력 20년 이상의 박사학위를 지닌 보육전문가 1인, 석사학위와 10년 이상 현장 경력을 지닌 연구원 2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활동계획안에 대해 목표, 내용, 교수학습, 실시 시간, 교육자료 등이 연구의 목적과 연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 뒤 활동이 확정되었다.

다섯째, 유아교육 및 현장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연령별 협력 활동에 대해 예비연

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P사가 위탁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4세 7개 학급과 5세 7개 학급을 대상으로 각 학급별로 4~5개씩 활동을 무선 배정하여 개발된 활동 전체가 최소 2학급 이상의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연령별 활동의 목표 및 내용, 활동 방법 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활동 시 사용하는 교육자료 변경 및 추가 등 구체적인 실시 방안의 수정을 거쳐 본 프로그램의 협력 활동 및 활동계획안이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 간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 개발 진행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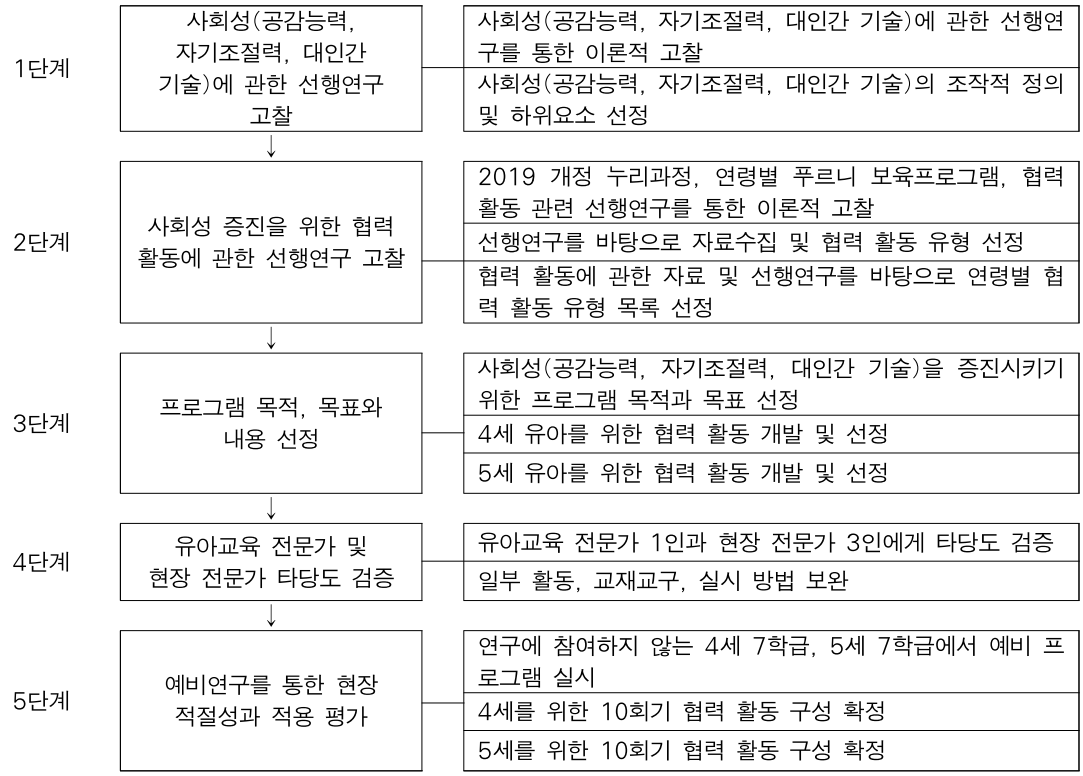

그림 1.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개발 진행 절차

2.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구성

1)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목적과 목표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의 놀이 상황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유아의 사회성 발달 즉,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수용하고 공감하며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인지를 조절한다.

셋째, 유아가 대인간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하며 친사회적 행동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한다.

2)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내용과 활동 구성

본 연구는 학급에서 또래 간 협력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목표로 하므로 또래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즐겁게 놀이하며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래와의 협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4세(신유림 등, 2019; 정현정, 2014)를 프로그램의 시작 연령으로 4세와 5세 간 연령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협력 활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4세 활동은 2명씩 짝을 지어 놀이하는 짝 활동과 또래 협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신체게임을 시작으로 점차 소그룹 미술·조형으로 활동 및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였다. 5세의 경우 한 가지 주제나 활동을 긴 시간에 걸쳐 확장, 심화하는 프로젝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유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중심으로 소그룹 또는 대그룹 활동인 이야기나누기, 협력게임, 미술·구성, 공연·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활동은 유아의 관심과 흥미,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절, 기관 행사 등과 연계되고, 유아가 흥미에 따라 일과 중 자유놀이시간에 반복하거나 내용이 심화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각 연령별 연간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연령별 활동계획안의 예시는 표 2, 3과 같다.

표 1. 4, 5세를 위한 연간 또래 간 협력 활동 목록

회기	4세 협력 활동		활동 유형	회기	5세 협력 활동		활동 유형
1	나와 친구의 기분 알아보기	얼굴 표정판 놀이	미술·조형	1	우리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거울 표정 놀이	신체게임				
2	손에 손잡고 게임	짝장갑 끼고 컵 쌓기	신체게임	2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우리반 약속		이야기 나누기
		짝꿍 체조	신체게임				
3	데굴데굴 공놀이	동물 먹이주기	신체게임	3	나란히 나란히 동물 줄인형의 산책		공연·전시
		미로 찾기	신체게임				
4	바닷속 세상 함께 꾸미기		미술·조형	4	생각 더하기	빨대 블록 미션게임	협력게임
						협력 보드게임 「폭풍우가 오기 전에」	협력게임

표 1. 계속

회기	4세 협력 활동	활동 유형	회기	5세 협력 활동	활동 유형
5	두리두리 공놀이 반쪽집게 공놀이 달걀 배달 게임	신체게임 신체게임	5	함께 만드는 교통기관 디오라마	미술·구성
6	함께 타는 큰 버스	미술·조형	6	우리반 인형극 축제	공연·전시
7	색 모아 마음 모아 가을 나무	미술·조형	7	함께 펼쳐 만드는 세계 여행 게임	협력게임
8	북적북적 우리 동네	미술·조형	8	와글와글 작품 전시회	공연·전시
9	파라슈트 협력게임 파라슈트 놀이 거미줄 탈출	신체게임 신체게임	9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트리	미술·구성
10	손잡은 우리반 친구들	미술·조형	10	함께 부르는 노래극 놀이	공연·전시

표 2. 4세 협력 활동 계획안 예시

활 동 명	짝장갑 끼고 컵 쌓기	회기	2회기-①
활동 유형	신체게임	집단 형태	짝 활동
활동 목표	•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컵을 옮기고 쌓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본다. • 친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사회적 행동 기술을 기른다.		
협력 요소	긍정적 상호의존성	사회성 요소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활동 자료	짝장갑, 컵 쌓기용 컵, 컵 쌓기 그림카드		
활동 절차	활동 내용		
관심 갖기	1. 컵을 다양한 모양으로 쌓아보며 컵 쌓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연습해본다. “컵을 높이 쌓아볼까?” “위에 쌓으면 컵이 겹쳐져서 높이 쌓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 2. 짝장갑을 소개하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해보며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래, 이 장갑은 우리가 끼던 장갑과 좀 다르구나. 어떻게 끼는 장갑일까?” “둘이서 함께 끼는 장갑이라 양손에 장갑을 하나씩 끼고 한 짝은 함께 끼는 거란다.”		
실행하기	3. 교사와 유아가 활동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짝을 정해 컵을 쌓아본다. “두 명이 짝이 되어 짝 장갑을 끼고 컵 탑을 쌓아주는 거란다.” “장갑을 끼고 있어서 혼자서는 쌓기 어려울 것 같구나. 손이 3개뿐이라도 서로 도우면 잘 쌓을 수 있을 거야. 서로 잘 이야기 나누면서 힘을 모아보자.” 4. 짝장갑을 끼고 컵을 쌓는 것을 충분히 해본 후에 게임 형태로 확장하여 진행한다. 〈게임방법〉 ① 두 명이 한 쌍이 되어 짝을 정한다. ② 두 명이 나란히 옆으로 서서 안쪽의 두 손은 짝장갑 안에 넣어 마주잡고, 바깥쪽의 손은 각각 장갑을 한 짝씩 낀다. ③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목표지점에 놓여있는 컵을 컵 쌓기 그림카드의 모양대로 똑같이 쌓고 출발선으로 돌아온다. ④ 짝을 서로 바꾸며 게임을 지속한다.		
마무리 하기	5. 짝장갑을 끼고 컵 쌓기 활동을 반복하여 더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소감을 나눈 뒤 자료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표 3. 5세 협력 활동 계획안 예시

활 동 명	함께 만드는 교통기관 디오라마	회기	5회기
활동 유형	미술·구성	집단 형태	소집단 활동
활동 목표	• 친구들과 디오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한다. • 디오라마를 구성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한다.		
협력 요소	개별적 책무성, 집단과정	사회성 요소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활동 자료	디오라마 상자, 도로 테이프, 고정핀, 교통기관 모양종이, 건물 모양종이, 배경 모양종이		
활동 절차	활동 내용		
관심 갖기	1. 디오라마 상자를 사전에 놀이실에 비치하여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추가로 길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워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건물들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저쪽 건물까지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 도로를 함께 연결해보면 재미있겠구나. 길을 만들고 건물도 세울 수 있겠다.”		
실행하기	2. 관심을 확장하여 다양한 교통기관과 교통기관이 다니는 길, 도로의 요소 등을 알아보며 어떻게 구성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계획하도록 돕는다. “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길을 만들고 싶니?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닐 때 어떤 길을 보았니?” “길을 다니는 여러 가지 교통기관도 함께 만들면 좋겠구나.” 3. 유아들이 서로 상의하여 계획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디오라마를 구성한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대로 길을 만들어보자.” “함께 의논한 대로 어린이집도 만들어주고 빵집 건물도 만들어주었구나.” 4. 디오라마에 내가 만들고 싶은 교통기관, 건물, 표지판 등 여러 가지 구성물을 추가로 꾸미고 세워서 디오라마를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멋진 자동차를 색칠해주었구나. 어디에 세워볼까?” “여기에는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만들어 붙여주었구나.” 5. 함께 만든 디오라마에 제목, 소개하는 글 등을 적어 완성한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상의해서 함께 적어보자.”		
마무리 하기	6. 친구들과 교통기관 디오라마를 협력하여 만들고 함께 놀이한 경험을 떠올려보며 소감을 나눈다. “친구들과 함께 디오라마를 만들어봤는데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혼자서는 이렇게 긴 길을 완성하기 쉽지 않았겠다. 다들 힘을 잘 모아주었네.”		

Ⅲ.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적용 및 효과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P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 중 규모와 물리적

환경이 유사한 어린이집을 임의 선정한 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8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각 실험집단 4개, 비교집단 4개로 무선 할당하였다. 각 어린이집의 4, 5세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 참여동의서를 각 가정에 배부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실험집단은 4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4세 4학급의 유아 35명(남 20명, 여 15명)과 5세 4학급의 유아 33명(남 13명, 여 20명)의 68명이며, 비교집단은 4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4세 4학급의 유아 35명(남 21명, 여 14명)과 5세 4학급의 유아 34명(남 19명, 여 15명)의 69명으로 구성되었다.

유아는 4세경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또래와의 협력 활동이 가능해지나 동시에 대인간 기술이 부족하고 또래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권효진, 2016; 이영애, 2019; 정현정, 2014). 이에 4~5세 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고 놀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증진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 연령으로 선정하였으며, 4, 5세 학급 모두 두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4세 t = -1.12, *ns.*; 5세 t = -.97, *ns.*). 유아의 연령별 분포 및 성별 분포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징 (N = 137)

구분		남아	여아	합계	월령	t
		n(%)	n(%)	N(%)	(표준편차)	
4세	실험집단	20(57.1)	15(42.9)	35(100.0)	56.11(7.22)	-1.12
	비교집단	21(60.0)	14(40.0)	35(100.0)	57.66(3.76)	
5세	실험집단	13(39.4)	20(60.6)	33(100.0)	67.67(11.53)	-.97
	비교집단	19(55.9)	15(44.1)	34(100.0)	69.71(4.15)	
합계		73(53.3)	64(46.7)	137(100.0)		

2. 연구도구

1) 유아의 공감능력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천우영(2016)이 개발한 유아 공감능력 척도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예.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를).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감 11문항, 소통적 공감 14문항의 3개 하위요인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되며, 평소 유아의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평정하였다. 공감능력의 구성 요인 및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공감능력의 하위영역별 개념과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개념	문항 수	신뢰도	
			4세	5세
인지적 공감	유아가 어떤 상황을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행동 특성	14	.91	.92
정서적 공감	유아가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정서 경험을 하는 행동 특성	11	.87	.87
소통적 공감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대립하지 않고 친사회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특성	14	.81	.84
전체		39	.93	.94

2)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Whitebread 등(2009)이 Bronson(2000)의 도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Children's Independent Learning Development(CHILD 3-5)'를 박미정와 엄정애(2017)가 타당화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예. 학습한 전략을 사용한다→과제수행이나 문제상황 시 유아가 학습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정서적 조절 5문항, 친사회적 조절 5문항, 인지적 조절 7문항, 동기적 조절 5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된다. 평소 유아의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자기조절력의 구성 요인 및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별 개념과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개념	문항 수	신뢰도	
			4세	5세
정서적 조절	집중하여 과제에 도전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	5	.87	.86
친사회적 조절	타인과의 협상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5	.86	.88
인지적 조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과제수행을 위한 계획, 전략 선택 전략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7	.93	.92
동기적 조절	스스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것을 찾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동을 즐기며 주도할 수 있는 능력	5	.87	.87
전체		22	.96	.96

3) 유아의 대인간 기술

유아의 대인간 기술은 Gresham과 Elliot(1987)의 SSRS(Social Skills Rating System)를 서미옥(2004)이 타당화한 K-SSRS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예. 적절할 때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시간, 장소 등이 알맞은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이는 협력성

9문항, 자기통제 7문항, 주장성 5문항의 3개 하위영역의 총 21문항으로, 평소 유아의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평정하였다. 대인간 기술의 구성 요인 및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7과 같다.

표 7. 대인간 기술의 하위영역별 개념과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개념	문항 수	신뢰도	
			4세	5세
협력성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교실의 활동에 잘 참여하는 행동 특성	9	.88	.92
자기통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하는 행동 특성	7	.88	.82
주장성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특성	5	.82	.88
전체		21	.91	.91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도구의 적절성, 소요 시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사 6명(4세 학급 3명, 5세 학급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의 문항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모호한 표현의 문항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예. 적절한 방식→교실에서 허용되는 방식). 또한 유아의 행동을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범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간 평정 점수가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 도구에서 4점 평정척도인 공감능력과 대인간 기술에 대해 5점 평정척도로 수정하였다.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문항에 대한 유아 1인당 평정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였다.

2) 유아 평정 및 프로그램 실행 교사 교육

(1) 유아 평정 교육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 준거 및 도구 사용 방법, 유의점 등에 대한 설명과 평정자 교육이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1회, 도구 사용 설명서 배부를 통해 실시되었다.

(2) 프로그램 실행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교사 세미나 및 영상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내용 및 운영 방법, 활동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함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

이 이루어졌다. 교사 세미나는 2회기에 걸쳐 총 6시간의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교사의 피로도 및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협력 활동에 대한 교육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회기 교육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개요, 1차 실시 활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2회기 교육에서는 2차 협력 활동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1차 활동 실행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사들의 올바른 실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각 활동의 실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활동별로 제작된 영상교육을 병행하였다.

3) 사전검사

실험집단의 담임교사 8명(4세 학급 4명, 5세 학급 4명)과 비교집단 담임교사 8명(4세 학급 4명, 5세 학급 4명)이 교실에서의 행동 관찰을 토대로 대상 유아의 사회성 즉,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질문지를 평정하였다. 4세 학급 교사는 연령평균 29세(실험 29.5세, 비교 28.5세), 평균경력 58.8개월(실험 67.3개월, 비교 50.3개월)이었으며 5세 학급 교사는 연령평균 27.3세(실험 28세, 비교 26.5세), 평균경력 64.4개월(실험 75개월, 비교 53.8개월)이었다.

4)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실시

(1) 협력 활동 실시 기간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협력 활동을 활용한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4세와 5세 학급을 대상으로 5월~7월 사이 10주 동안「버디톡」의 2회기차부터 6회기차의 내용으로 총 5회기의 협력활동(4세는 8개 하위활동, 5세는 6개 하위활동)을 모든 실험집단 학급에서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계절, 기관 행사 등을 포함하여 유아의 관심을 반영한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개발된「버디톡」프로그램의 총 10회기 활동 중에서 실험연구 기간(5~7월)에 실시하기에 적절한 회기 활동, 즉 연중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활동 및 여름 주제 관련 활동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4세와 5세 학급 모두 공통적으로 1회기 활동당 2주씩 총 5회기의 활동이 10주간 진행되었으나 연령별 활동 유형의 차이에 따라 실제 진행된 활동의 개수 및 활동별 실시 기간은 다르게 구성되었다. 예컨대, 4세의 3회기 활동인 '데굴데굴 공놀이'는 2개의 하위활동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활동을 1주씩, 총 2주간 실시되었다. 반면, 5세의 6회기 활동인 '우리반 인형극 축제'의 경우 계획과 준비, 실행 및 공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2주간 실시되었다.

(2) 협력 활동 실시 방법

각 활동은 활동 유형에 따라 자유놀이시간의 영역 활동으로 또는 대집단 활동으로 실시되었다. 게임의 경우 자유놀이시간의 소집단 게임은 15~20분 정도, 대집단시간 게임의 경우 30~40분간 소요되었다. 미술·구성 활동은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구성물을 꾸미고 전시해볼 수 있도록 2주에 걸쳐 학급 내에 설치되어 실시되었다. 5세 학급의 공연 활동의 경우, 공연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계획 세우기,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공연을 위한 다양한 준비과정에 참여하기, 공연 실행에 이르기까지 2주 동안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모든 활동은 교육받은 학급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으며 활동별로 사회성 증진을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를 지원하였다. 유아의 사회성 평정자와 프로그램 실행자가 동일하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본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이 담임교사가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점, 프로그램의 활동들이 실험자가 주도하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에 기반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진행 기간 및 순서를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 간 프로그램 실행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2회에 걸쳐 ZOOM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각 활동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활동별로 제작된 영상교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즉, 각 활동이 사회성과 연관된 특성과 의미, 실행 시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높이는 상호작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실행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협력미술용 큰 골판지 자료나 협력게임 도구 등 활동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의 실행 편의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일관성 있는 실행을 도모하였다.

5)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활동이 모두 끝난 뒤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협력 활동으로 구성된 「버디톡」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즉,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연구 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고자 Cronbach's α를,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자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및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실험 및 비교집단 간 사전점수 차이를 살펴본 예비 분석 결과, 4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총점(t = 2.22, p < .05) 및 정서적 조절(t = 2.08, p < .05), 친사회적 조절(t = 2.03, p < .05), 인지적 조절(t = 3.15, p < .01) 하위요인, 5세 유아의 대인간 기술 중 협력성(t = -2.14, p < .05), 자기통제(t = -2.09, p < .05)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에 대한 「버디톡」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조정된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버디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4, 5세 유아를 위한 협력 활동인 「버디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공감능력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조정된 사후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표 8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9에 공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공감능력 총점의 조정된 사후점수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4세 3.70, 5세 3.91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48, 5세 3.53으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공감능력 총점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4.42$, $p < .05$; 5세 $F = 11.37$,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이 4세 3.74, 5세 3.83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41, 5세 3.39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인지적 공감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6.26$, $p < .05$; 5세 $F = 12.78$, $p < .001$). 정서적 공감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3.85, 5세 4.00인 반면, 비교집단 평균이 4세 3.54, 3.48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정서적 공감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6.12$, $p < .05$; 5세 $F = 10.88$, $p < .01$). 한편, 소통적 공감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3.70, 5세 3.91. 비교집단 4세 3.49, 5세 3.73으로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소통적 공감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버디톡」 프로그램은 4, 5세 유아의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 증진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표 8.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 사후 및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37)

학급연령	하위요인	집단	사례수	사전	사후	조정
				$M(SD)$	$M(SD)$	$M(SD)$
4세 (n = 70)	공감능력 총점	실험	35	3.36(.62)	3.72(.64)	3.70(.07)
		비교	35	3.31(.47)	3.46(.55)	3.48(.07)
	인지적 공감	실험	35	3.32(.68)	3.75(.69)	3.74(.09)
		비교	35	3.28(.53)	3.40(.64)	3.41(.09)
	정서적 공감	실험	35	3.38(.75)	3.92(.69)	3.85(.09)
		비교	35	3.14(.58)	3.47(.72)	3.54(.09)
	소통적 공감	실험	35	3.38(.67)	3.54(.67)	3.57(.08)
		비교	35	3.47(.58)	3.52(.53)	3.49(.08)
5세 (n = 67)	공감능력 총점	실험	33	3.47(.61)	3.90(.65)	3.91(.08)
		비교	34	3.50(.61)	3.54(.64)	3.53(.08)
	인지적 공감	실험	33	3.39(.74)	3.80(.75)	3.83(.09)
		비교	34	3.47(.77)	3.42(.80)	3.39(.09)
	정서적 공감	실험	33	3.24(.61)	3.92(.70)	4.00(.11)
		비교	34	3.52(.67)	3.56(.74)	3.48(.11)
	소통적 공감	실험	33	3.65(.67)	3.99(.64)	3.91(.09)
		비교	34	3.34(.60)	3.65(.60)	3.73(.09)

표 9.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후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N* = 137)

학급연령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4세 (*n* = 70)	공변인(사전 공감능력 총점)	11.72	1	11.72	62.12***
	집단	.84	1	.84	4.42*
	잔차	12.64	67	.19	
	합계	25.51	69		
	공변인(사전 인지적 공감)	10.00	1	10.00	33.70***
	집단	1.85	1	1.85	6.26*
	잔차	19.82	67	.30	
	합계	31.94	69		
	공변인(사전 정서적 공감)	10.59	1	10.59	40.80***
	집단	1.59	1	1.59	6.12*
	잔차	17.39	67	.26	
	합계	31.47	69		
	공변인(사전 소통적 공감)	17.17	1	17.17	71.60***
	집단	.12	1	.12	.52
	잔차	16.07	67	.24	
	합계	33.24	69		
5세 (*n* = 67)	공변인(사전 공감능력 총점)	13.21	1	13.21	61.03***
	집단	2.46	1	2.46	11.37**
	잔차	13.85	64	.22	
	합계	29.19	66		
	공변인(사전 인지적 공감)	21.83	1	21.85	86.37***
	집단	3.22	1	3.22	12.75***
	잔차	16.18	64	.25	
	합계	40.40	66		
	공변인(사전 정서적 공감)	9.03	1	9.03	23.43***
	집단	4.20	1	4.20	10.88**
	잔차	24.68	64	.39	
	합계	35.77	66		
	공변인(사전 소통적 공감)	7.32	1	7.32	26.17***
	집단	.52	1	.52	1.86
	잔차	17.91	64	.28	
	합계	27.16	66		

*p<. 05, **p<. 01, ***p<. 001.

2. 「버디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4, 5세 유아를 위한 협력 활동인 「버디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자기조절력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조정된 사후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표 10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1에 공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자기조절력 총점의 조정된 사후점수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4세 4.01, 5세 4.01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62, 5세 3.75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자기조절력 총점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13.37, p < .001; 5세 F = 4.64, 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조절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이 4세 3.99, 5세 3.82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42, 5세 3.44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정서적 조절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17.71, p < .001; 5세 F = 6.63, p < .05). 인지적 조절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4.14, 5세 4.15인 반면, 비교집단 평균은 4세 3.71, 5세 3.95로 나타나 4세 실험집단 유아의 인지적 조절만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12.52, p < .01; 5세 F = 2.30, *ns.*). 동기적 조절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4.05, 5세 4.02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68, 5세 3.70으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동기적 조절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8.18, p < .01; 5세 F = 5.08, p < .05). 한편, 자기조절력의 하위 요인 중 친사회적 조절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3.86, 5세 4.01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57, 5세 3.85로 나타나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친사회적 조절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버디톡」 프로그램은 4세 유아의 정서적 조절, 인지적 조절, 동기적 조절 증진을 통해, 5세 유아의 정서적 조절, 동기적 조절 증진을 통해 이들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표 10. 유아의 자기조절력 대한 사전, 사후 및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37)

학급연령	하위요인	집단	사례수	사전	사후	조정
				M(*SD*)	*M*(*SD*)	*M*(*SD*)
4세 (n = 70)	자기조절력 총점	실험	35	3.60(.60)	4.09(.55)	4.01(.08)
		비교	35	3.31(.51)	3.54(.49)	3.62(.08)
	정서적 조절	실험	35	3.51(.67)	4.09(.67)	3.99(.10)
		비교	35	3.21(.55)	3.32(.68)	3.42(.10)
	친사회적 조절	실험	35	3.51(.71)	3.94(.76)	3.86(.10)
		비교	35	3.19(.61)	3.49(.58)	3.57(.10)
	인지적 조절	실험	35	3.77(.64)	4.21(.51)	4.14(.08)
		비교	35	3.30(.60)	3.64(.51)	3.71(.08)
	동기적 조절	실험	35	3.54(.68)	4.06(.69)	4.05(.09)
		비교	35	3.53(.56)	3.68(.54)	3.68(.09)
5세 (n = 67)	자기조절력 총점	실험	33	3.61(.76)	3.99(.64)	4.01(.09)
		비교	34	3.67(.66)	3.77(.67)	3.75(.09)
	정서적 조절	실험	33	3.44(.91)	3.78(.77)	3.82(.10)
		비교	34	3.56(.73)	3.48(.80)	3.44(.10)
	친사회적 조절	실험	33	3.56(.88)	3.98(.75)	4.01(.09)
		비교	34	3.64(.73)	3.87(.67)	3.85(.09)
	인지적 조절	실험	33	3.78(.76)	4.13(.64)	4.15(.09)
		비교	34	3.84(.66)	3.97(.73)	3.95(.09)
	동기적 조절	실험	33	3.61(.96)	4.03(.66)	4.02(.10)
		비교	34	3.58(.80)	3.69(.64)	3.70(.10)

표 11.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사후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N* = 137)

학급연령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4세 (*n* = 70)	공변인(사전 자기조절력 총점)	5.61	1	5.61	29.35***
	집단	2.56	1	2.56	13.37***
	잔차	12.80	67	.19	
	합계	23.67	69		
	공변인(사전 정서적 조절)	10.65	1	10.65	34.64***
	집단	5.44	1	5.44	17.71***
	잔차	20.60	67	.31	
	합계	41.66	69		
	공변인(사전 친사회적 조절)	8.95	1	8.95	27.05***
	집단	1.30	1	1.30	3.94
	잔차	22.16	67	.33	
	합계	34.77	69		
	공변인(사전 인지적 조절)	2.65	1	2.65	11.94**
	집단	2.78	1	2.78	12.52**
	잔차	14.89	67	.22	
	합계	23.34	69		
	공변인(사전 동기적 조절)	6.28	1	6.28	21.27***
	집단	2.42	1	2.42	8.18**
	잔차	19.78	67	.30	
	합계	28.55	69		
5세 (*n* = 67)	공변인(사전 자기조절력 총점)	13.37	1	13.37	54.64***
	집단	1.14	1	1.14	4.64*
	잔차	15.67	64	.25	
	합계	29.88	66		
	공변인(사전 정서적 조절)	17.12	1	17.12	47.41***
	집단	2.40	1	2.40	6.63*
	잔차	23.11	64	.36	
	합계	41.72	66		
	공변인(사전 친사회적 조절)	14.65	1	14.65	52.54***
	집단	.41	1	.41	1.48
	잔차	17.85	64	.28	
	합계	32.71	66		
	공변인(사전 인지적 조절)	11.71	1	11.71	39.55***
	집단	.68	1	.68	2.30
	잔차	18.95	64	.30	
	합계	31.13	66		
	공변인(사전 동기적 조절)	15.29	1	15.29	44.63***
	집단	1.74	1	1.74	5.08*
	잔차	21.93	64	.34	
	합계	39.18	66		

*p<.05, **p<.01, ***p<.001.

3.「버디톡」프로그램이 유아의 대인간 기술에 미치는 효과

4, 5세 유아를 위한 협력 활동인 「버디톡」 프로그램이 유아의 대인간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 대인간 기술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조정된 사후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표 12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3에 공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대인간 기술 총점의 조정된 사후점수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4세 3.90, 5세 4.10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67, 5세 3.79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대인간 기술 총점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5.20, p < .05; 5세 F = 9.16,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영역 중 주장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이 4세 3.39, 5세 3.87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32, 5세 3.59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주장성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6.23, p < .05; 5세 F = 5.04, p < .05). 자기통제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3.72, 5세 4.13인 반면, 비교집단의 평균은 4세 3.55, 5세 3.69로 나타나 5세 실험집단 유아에서만 자기통제가 비교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세 F = 1.44, *ns.*; 5세 F = 15.92, p < .001). 한편, 협력성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4세 4.16, 5세 4.20, 비교집단 평균이 4세 3.95, 5세 3.99로 나타나 4, 5세 모두 실험집단 유아의 협력성이 비교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버디톡」프로그램은 4세 유아의 주장성 증진을 통해, 5세 유아의 자기통제 및 주장성 증진을 통해 이들의 대인간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표 12. 유아의 대인간 기술에 대한 사전, 사후 및 조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37)

학급연령	하위요인	집단	사례수	사전	사후	조정
				$M(SD)$	$M(SD)$	$M(SD)$
4세 (n = 70)	대인간 기술 총점	실험	35	3.53(.55)	3.93(.57)	3.90(.07)
		비교	35	3.45(.37)	3.64(.50)	3.67(.07)
	협력성	실험	35	3.80(.71)	4.19(.68)	4.16(.08)
		비교	35	3.71(.55)	3.92(.67)	3.95(.08)
	자기통제	실험	35	3.46(.76)	3.82(.78)	3.72(.10)
		비교	35	3.18(.47)	3.45(.69)	3.55(.10)
	주장성	실험	35	3.16(.63)	3.61(.69)	3.39(.10)
		비교	35	3.36(.63)	3.40(.84)	3.32(.10)
5세 (n = 67)	대인간 기술 총점	실험	33	3.61(.67)	4.03(.62)	4.10(.07)
		비교	34	3.83(.54)	3.86(.51)	3.79(.07)
	협력성	실험	34	3.75(.77)	4.09(.66)	4.20(.10)
		비교	35	4.15(.73)	4.09(.73)	3.99(.10)
	자기통제	실험	34	3.40(.76)	4.00(.71)	4.13(.08)
		비교	35	3.75(.62)	3.82(.68)	3.69(.08)
	주장성	실험	33	3.67(.88)	3.96(.83)	3.87(.09)
		비교	34	3.35(.81)	3.50(.52)	3.59(.09)

표 13. 유아의 대인간 기술에 대한 사후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N* = 137)

학급연령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4세 (*n* = 70)	공변인(사전 대인간 기술 총점)	7.76	1	7.76	43.10**
	집단	.94	1	.94	5.20*
	잔차	12.06	67	.18	
	합계	21.61	69		
	공변인(사전 협력성)	14.63	1	14.63	58.91***
	집단	.76	1	.76	3.08
	잔차	16.64	67	.25	
	합계	32.54	69		
	공변인(사전 자기통제)	14.73	1	14.73	44.49***
	집단	.48	1	.48	1.44
	잔차	22.18	67	.33	
	합계	39.38	69		
	공변인(사전 주장성)	15.61	1	15.61	43.33***
	집단	2.24	1	2.24	6.23*
	잔차	24.14	67	.36	
	합계	40.54	69		
5세 (*n* = 67)	공변인(사전 대인간 기술 총점)	10.10	1	10.10	59.75***
	집단	1.55	1	1.55	9.16**
	잔차	10.82	64	.17	
	합계	21.42	66		
	공변인(사전 협력성)	9.87	1	9.87	29.24***
	집단	.69	1	.69	2.05
	잔차	21.61	64	.34	
	합계	31.48	66		
	공변인(사전 자기통제)	17.42	1	17.42	89.14***
	집단	3.11	1	3.11	15.92***
	잔차	12.50	64	.20	
	합계	30.47	66		
	공변인(사전 주장성)	15.09	1	15.09	60.54***
	집단	1.26	1	1.26	5.04*
	잔차	15.95	64	.25	
	합계	34.55	66		

*p<.05,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 「버디톡」은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을 포함하는 유아 사회성 연구, 교수학습으로서 협력 활동 연구,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및 자료들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시안을 구성하였다.「버디톡」의 목적은 공감,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증진을 통해 4, 5세 유아의 관계 역량인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계절, 기관 행사, 유아의 흥미 등을 반영한 연간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되었으며,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일과 중 자유놀이시간에 반복 또는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4, 5세 유아의 통합적 경험을 지원하는 다양한 매체와 유형의 협력 활동들, 즉, 4세는 미술·조형, 신체게임 등, 5세는 이야기나누기 및 토론, 협력게임, 미술·구성, 공연·전시 등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학기 초와 학기 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1회기를 기준으로 총 10회기의 협력 활동이 연령별로 구성되며, 활동의 진행 순서 및 기간은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매 활동 시 또래 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사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활동이 끝날 때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래 간 협력한 경험을 상기하고 평가하는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버디톡」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연간 보육계획 시 고려되는 계절, 기관 행사, 유아의 관심과 흥미, 일상적인 경험을 주제로 구성됨으로써 교사가 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적용하기에 용이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활동들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놀이시간에 유아의 흥미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몇 주에 걸쳐 활동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프로그램의 획일적 운영이 아니라 활동의 진행 기간과 순서를 교사가 학급 유아에 맞추어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4~5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심화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실행의 지속성과 자율성 및 현장 교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회성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협력 활동을 활용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버디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버디톡」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4, 5세 모두에서 실험집단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공감능력의 총점 및 하위영역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버디톡」은 4, 5세 유아가 상황을 타인의 관점에서 보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수용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협력 활동 경험이 유아의 공감 능력을 비롯한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신은수, 1993; 안정은 등, 2019; 염연정, 2009; 이수진, 2012; 조주홍,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유아의 공감능력은 또래집단 내 경험과 공감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Howe, 2013). 4, 5세 유아가 「버디톡」에 참여하면서 이전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고 표현하며 조율하여 행동하는 기회가 많아져 공감능력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협력 활동 시

경험하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대면적 상호작용 과정이 유아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입장, 상황,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진하도록 한다는 안정은 등(2019)의 연구, 또래 협력에 의한 교수학습방법이 유아의 추론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안부금(2004)의 연구, 유아의 협력적 신체활동 실시 이후 유아 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증진되었다는 조주홍(2019)의 연구 등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버디톡」의 활동은 유아가 또래와 협력하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개발되었다.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또래 간 서로를 지원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또래 간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공감은 유아가 공감받고 공감할 기회가 많아질 때 증진된다(Howe, 2013)는 점을 고려할 때 「버디톡」은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소통적 공감의 경우 실험집단의 유아가 비교집단 유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4, 5세 유아가 자신이 감정을 타인과 대립하지 않고 친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소통적 공감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래 간 협력 활동을 통한 경험뿐 아니라 친사회적 언어 표현 연습, 교사의 모델링과 같은 더 다양한 측면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소통적 공감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이라고 한 박교연(2021)의 입장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둘째, 실험집단 4, 5세 유아는 비교집단 유아보다 자기조절력의 총점 및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세는 총점 및 정서적 조절, 인지적 조절, 동기적 조절에서, 5세는 총점 및 정서적, 동기적 조절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 하위영역 중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버디톡」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집중해서 과제에 도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등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표현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 적절한 방법으로 활동을 즐기는 동기적 조절 등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 활동 경험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신슬아, 2018; 안정은 등, 2019; 이수기, 2005; 이수진, 2012)에 의해 지지된다. 「버디톡」에서 유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동안 과제수행에 책임을 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도움을 구하여 해결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또한 유아는 과제의 성공을 위해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행동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정하게 된다. 이에 유아에게 또래와 놀이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도록 하는 동기적 조절, 자신의 정서와 표현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정서적 조절, 적절한 전략을 계획하고 선택하여 사용하는 인지적 조절 증진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고츠키의 이론에 근거하여 유아가 또래와 협력하고 놀이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놀이가 자기조절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Bodrova와 Leong (1995)의 견해와 입장을 같이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 중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지하고 위로하는 친사회적 조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별로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선행연구(Zimmerman & Martinez-Pons, 1990)를 볼 때 자기조절력의 하위영역별 발달차가 「버디톡」의 하위영역별 효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4, 5세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래의 생각, 감정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맞게 위로하는 친사회적 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앞선 분석에서 「버디톡」이 유아의 감정을 타인과 대립하지 않고 친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소통적 공감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셋째, 실험집단 유아는 비교집단 유아보다 대인간 기술의 총점 및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세는 하위영역 중 주장성에서, 5세는 하위영역 중 주장성과 자기통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버디톡」은 4, 5세 유아가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행동하는 주장성 증진을 통한 대인간 기술에 효과적이며, 5세 유아에서는 주장성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하는 자기통제 증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 활동이 유아의 주장성 및 언어 표현력을 포함하는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신슬아, 2018; 염연정, 2009; 조주홍, 2019; Domitrovich et al., 2007)와 입장을 같이한다. 「버디톡」과 같은 협력 활동은 과정지향적 경험으로(Johnson & Johnson, 2013), 함께 놀이하는 유아 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안하는 기회가 다른 활동보다 많아진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 간 토론에 참여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될 때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해야 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4, 5세 실험집단 유아의 주장성 증진의 요인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자기통제 기술 증진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인간 기술 중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교실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보여주는 협력성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아 대인간 기술의 하위영역에 따른 차이를 추후 연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버디톡」 활동은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기보다 자유놀이시간에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또래 협력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협력성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성이 높은 유아가 대체로 교실 내 약속을 준수하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고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점(Kostelnik et al., 2017)을 고려할 때 대인간 기술의 하위영역에 대한 「버디톡」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평정을 위한 평정자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버디톡」의 실시자와 사회성 척도의 평정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한 한계를 지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평정 외 다른 사회성 평가 방법을 함께 실시하여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평정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P사가 위탁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이 제한적이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버디톡」의 모든 회기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전 회기 수행 후 이에 따른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4, 5세 유아의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사가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력 활동을 통한 유아 사회성 프로그램인「버디톡」을 개발하고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대인간 기술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유아의 사회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보육 현장에서 또

래 협력 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지속성과 편의성을 가지고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성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권효진 (2016). 사회 정서적 보드게임 놀이가 만 4세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성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 오숙현 (2001). **유아협동활동의 현장적용: 미술협동작업의 형태와 구성**. 양서원.

김우영, 김영옥 (2014).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연구**, 34(3), 263-290. https://doi.org/10.18023/kjece.2014.34.3.013

김유경, 손원경 (2006). LT 협동학습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자기조절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5(1), 89-106.

박교연 (2021). 공감적 소통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 효과 분석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 엄정애 (2017). 유아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2(3), 25-46. https://doi.org/10.16978/ecec.2017.12.3.002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손복영 (2017). LT 협동학습을 활용한 배려교육이 유아의 배려행동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195-222.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9.195

신슬아 (2018). 유아 주도적 협동게임이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유림, 문혁준, 나종혜, 박진옥, 서소정, 신혜영 등 (2019). **놀이지도(4판)**. 창지사.

신은수 (1993). 유아교육의 교수방법으로서 협동학습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유아교육연구**, 13(1), 133-147.

안부금 (2004). 또래협력에 의한 과학교수방법이 유아의 추론능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9(2), 45-63.

안정은, 이효빈, 권연희 (2019).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3), 61-81. https://doi.org/10.14698/jkcce.2019.15.03.061

양새롬, 김성희, 김성현 (2013). 미술요소 중심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성, 언어능력,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207-235.

염연정 (2009). 글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적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기 (2005).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진 (2012). 또래협동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슬아, 권석만 (2017). 자기조절의 이론적 접근과 심리장애와의 관계: 경험적 연구에 근거한 객관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1-37. https://doi.org/10.22257/kjp.2017.03.36.1.001

이영애 (2019). **아이의 사회성**. (주)DKJS.

이인원, 최기영 (2006). 또래협동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77-99.

이화원, 손은령 (2019). 동화를 활용한 협동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4), 27-50. https://doi.org/10.22155/JFECE.26.4.27.50

정하나 (2015). 극화놀이를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현정 (2014). 따돌림 동화를 활용한 역할극이 만 4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재현, 김영희 (2017). 유아의 사회성발달과 정서발달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3), 253-275. https://doi.org/10.22155/JFECE.24.3.253.275

조주홍 (2019). 만 4세 유아의 협력적 신체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실행연구. **영유아교육:이론과 실천**, 4(1), 103-124. https://doi.org/10.20926/ETPIYC.2019.4.1.5

지성애 (2017). 자기조절에 기반한 유아 사회적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1(6), 309-339.

천우영 (2016). 교사용 유아 공감능력검사도구의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혜진, 김선영 (2015).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323-346.

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16). **3-4세 푸르니 보육프로그램**. 다음세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19). **5세 푸르니 보육프로그램**. 다음세대.

Bodrova, E., & Leong, D. J. (1995). *Tools of mind: A Vygotsky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ntice Hall.

Bronson, M. M.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The Guilford Press.

Carver, C. S., & Scheier, M. F. (2016). Self-regulation of action and affect. In K. D. Vohs & R. F. Baumeist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3rd ed., pp. 3-23). Guilford Press.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rown & Benchmark.

Domitrovich, C. E., Cortes, R. C., & Greenberg, M. T. (2007). Improving young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A randomized trial of the preschool "PATHS" curriculum.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 *28*(2), 67-91. https://doi.org/10.1007/s10935-007-0081-0

Gordon, M. (2010). **공감의 뿌리**(문희경 옮김). 샨티. (원판 2005).

Gresham, F. M., & Elliott, S. N.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ive behavior and social skills: Issues in definition and assess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1), 167-181.

https://doi.org/10.1177/002246698702100115

Howe, D. (2013). **공감의 힘**(이경진 옮김). 지식의 숲. (원판 2012).

Johnson, D. W., & Johnson, R. T. (2013). The impact of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learning environments on achievement. In J. Hattie & E. Anderma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tudent achievement* (pp. 372-374). Routledge.

Katz, L. C., & McClellan, D. E. (2001). **어린이들의 사회적 능력 배양: 교사의 역할**(홍용희 옮김). 양서원. (원판 2000).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7). **영유아 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교문사. (원판 2015).

Leary, M. R., & Guadagno, J. (2011). The sociometer, self-esteem,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K. D. Vohs & R. F. Baumeist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339–354). Guilford Press.

Shaffer, D. R.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Cengage Learning.

Whitebread, D., Coltman, P., Pasternak, P. D., Sangster, C., Grau, V., Bingham, B., et al. (2009). The development of two observational tools for assessing metacogni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young childr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4*(1), 463-485. https://doi.org/10.1007/s11409-008-9033-1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https://doi.org/10.1037/0022-0663.82.1.51

논 문 투 고 : 23.08.14.
수정원고접수 : 23.09.15.
최종게재결정 : 23.09.21.